



古代文字

Elmer D. Johnson 著

任 明 淳 譯

<中央大 圖書館學科 助教授>

譯者註 : 이 글은 Elmer D. Johnson 이 저술한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Writing, Printing, Books and Libraries*(Metuchen, N.J.: The Scarecrow Press. 1973) 중에서 第Ⅱ章 'Early Writing'을 번역한 것이다.

文字, 圖書, 그리고 圖書館의 발달은 커뮤니케이션의 진화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태고의 동굴속그림으로부터 현대의 전자과학적인 장치에 이르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직선적이고 함축성 있는 발전이었다. 이 과정이 그토록 뚜렷하고 지속적이었던 것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발전단계가 논리적으로 진승되어 왔기 때문이다. 言語에서부터 시작하여 文字, 印刷, 그리고 오늘날 사용되는 전자공학적 커뮤니케이션은 제각기 그 나름대로 훌륭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意思傳達方法은 音聲과 함께 사용한 "몸짓"(gesture)일 것이다. 주먹을 꼭 쥐거나, 팔을 높이 쳐드는 것은 危脅을 뜻했고, 손바닥을 활짝 펴보이는 것은 平和나 友情을 표시했을 것이다. 손가락 하나를 세우면 하나를 의미했고, 손가락을 활짝 펴면 多數를 의미했다. 팔, 손, 손가락, 눈, 얼굴의 근육에 의한 여러가지 動作으로서 한마디의 音聲을 내지 않고도 많은 意思를 소통할 수 있었다. 原始社會에서는 몸짓에다 몇마디 音聲을 곁들이면 필요한 거의 모든 意思疏通은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도 未開地域 사람과 시골사람은 아직도 gesture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言語를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承認을 표시하는 데는 고개를 끄덕이기가 하면, 의도적인 몸짓을 하는 演說家를 보더라도 gesture를 상당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형태의 몸짓은 인간 상호간의 직접적인 意思疏通에 있어서 기본적인 手段으로 되어 있다.

原始人은 몸짓과 더불어 音聲을 사용했고, 좀 더 文明化됨에 따라 音聲에만 의존하면서 言語를 발달시켰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언어가 기원되었는가 하는 것

은 先史時代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다. 歷史에 기록된 가장 원시적인 人間도 제법 발달된 言語를 사용했다고 한다. 어떤 學者는 人間の 최초의 音聲은 짐승이나 다른 自然의 소리를 흉내낸 모방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學者는 놀라움이나 두려움, 주의를 끌기 위한 단순한 비명과 같은 感歎詞가 人間の 최초의 音聲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言語發達의 초기에는 名詞代名詞, 그리고 人名, 事物名, 場所名, 등이 간단한 動詞와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마도 크기, 숫자, 모양등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形容詞, 副詞는 이 보다 훨씬 후에 부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존하지 않는 事物을 묘사할 수 있고 과거에 일어났던 事件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人間の 想像力에 音聲을 첨가시킬 수 있을 때, 비로서 人間은 진정한 의미에서 言語를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言語는 기껏해야 音波의 범위 안에서나 불완전한 記憶力內에서만 지속된다. 다시 말해서, 說話와 傳說是 口頭로서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이를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억되어지고, 그들은 또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지만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解說을 덧붙여 전달하기 때문에, 아무도 당초에 先祖가 들었던 이야기를 原形 그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이다. 歷史와 學問은 文字없이도 보존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種族의 說話家(tribal story-teller)의 상상과 기분에 좌우된 확실성 없는 歷史이며 정확성이 결여된 學問인 것이다. 歷史를 傳說 아닌 事實로 보존하기 위해서 文字가필 요했던 것이다. 文字로 쓰여진 記錄이 등장하고 보존된 시절에서 現代 歷史家들은 先史時代와 歷史時代를 구분하고 있다. 아마도 人間은 歷史를 기록하기 위해서 보다는 宗教禮式을 보다 더 확고히 하고, 商業契約을 成文化하기 위해서 文字를 발전시켰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文字起源 [월선 전부터 수천년 동

안, 人間은 일종의 計算과 記錄을 사용하였고, 보존하였다. 人間이 최초로 시도한 圖式意思疎通(graphic communication)은 사냥과아티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 氏族의 상징, 종족간에 소유하고 있는 사냥터를 구분하는 표시등, 지극히 간단한 記號였다. 아마도 소유지표적에는 단순한 돌더미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태고로 부터 人間은 그림을 그렸고, 주변에서 본 것을 그림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石器時代 사람들은, 보고 잡은 動物의 그림을 그렸다. 이 時代 사람들이 그린 것으로 알려진 그림들은(가장 오래된 것은 10,000년~15,000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불란서 남부, 스페인, 북아프리카의 동굴등에서 발견되었다. 그 이전의 그림은 대체로 돌위에 간단히 새겨진 것으로 어떤 묘사인지 거의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 이후의 그림은 진정한 藝術作品들도 있다. 그들은 흙색, 검은색, 흰색, 빨강, 노랑색 등의 동물기름을 사용하여 사람과 동물의 지극히 사실적인 모양을 그렸다. 북아프리카 Sahara 동굴에서 발견된 그림은 B.C. 4000년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그림들이 意思疎通手段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예술적 충동의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종교 내지 제사의 意味를 표현한 것이었을까? 그림속의 무기는 짐승을 사냥하고, 죽었음을 나타낸 것이고, 숫자표시는 제산을 의미한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그림의 목적이 무엇이었던 간에, 이 그림들은 사실적 내지 상상적 표현의 수단이었음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石器時代의 동굴속 그림과 거의 같은 시대의 것으로, 불란서 남부 Mas d'Azil 지역에서 발견된 "Azilian Pebbles"를 통해서 가장 잘 알려진 표적이 새겨져 있거나 착색된 돌을 들 수 있다. 이 작은 돌들은 숫자나 의미를 지닌 상징이나, 혹은 단순히 장식적인 기묘한 디자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돌의 용도와 의미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이 구구하다. 어떤 學者는 이들이 신비적 종교적 價値를 지녔을 뿐,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돌이 財産所有權의 表的, 家系나 氏族의 表的, 혹은 토켄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學者도 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짐승의 數나 어떤 지역을 통과한 날자 등을 표시하기 위한 數字記錄이라고 보는 學者도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던 간에, 이것은 文字表現중에서 초기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고, 돌의 영구성을 이용하여 文字記錄을 영구히 보존하려고 하였던 것은 분명한 일이다. 돌 표면에 원시적 새김이나 그림이 그려진 이와 유사한 돌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서 발견되었다.

原始인이 기억을 세겨 보존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그 밖의 여러가지 도구들이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었다. 이중 널리 알려진 것으로 옛 페루인(Peruvian Indians)들이 사용한 quipus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갖가지 색깔과 길이의 끈을 여러 곳에 매듭을 지어서 所有財産의 記錄과 年代記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북미 인디언들도 구슬 또는 조가비 구슬로 만든 벨트로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했다. 이것을 "조가비 열주"(wampum)라고 하며, 조가비 구슬의 색깔, 크기, 위치 등으로 의사를 전달하였던 것이다. 중세의 유럽 농부는 교회의 축제와 성인절을 상기하기 위해, 또는 달력구실을 했던 나무에 새긴 clog calendar를 사용했다. 세계여러곳의 原始人들은, 새겨진 나무, 갈대, 뼈, 돌, 조가비, 견직물, 혹은 새겨지거나 색깔이 된 짐승가죽, 나무껍질 등을 가지고 이상과 같이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된 資料와 形態가 어떠한 간에, 記憶을 유지시키는 이러한 手段들은, 이들이 지니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意味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意思疎通手段이었음에는 틀림없다.

이상과 같이 記憶을 돕는 手段의 다음 段階로는 진정한 의미의 文字라고 불리우는 최초의 형태인 象形文字를 들 수 있다. 북미 인디언은 처음엔 象形文字를 記憶力을 유지시키는 정도의 手段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1800년과 1870년 사이에 Dakota Indian들이 사용한 "winter count"는 들소가죽덜개에 새긴 71개의 연속된 그림으로 각 그림에는 겨울의 주요행사가 묘사되었고, 종족의 年代記錄者로 하여금 一年史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기억보조의 역할을 하였다. 象形文字의 다음 단계로는 그림이야기, 그림메시지가 빠른다 사람, 짐승, 해, 산, 그 밖의 일상적인 事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그 그림을 가지고, 인디언은 연애편지, 사냥에 대한 報告, 종족간의 戰爭이나 條約까지도 전달할 수 있었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原始人들도 메시지나 事件記錄을 위하여 위와 유사한 그림을 사용했으나, 이와 같은 목적을 지닌 象形文字는 효과적인 意思疎通手段이 되기에는 아직 요원했다.

한편, 이집트와 中國에서는 위와 같은 象形文字를 기점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歷史를 기록하고, 商業을 처리하고, 文學을 창조할 수 있는 진정한 意味의 文字로 발전시켜 왔다. 이집트인의 象形文字는 처음엔 그것이 묘사하는 사실 이상의 것을 표현하지 않았으나, 점차 묘사된 對象보다는 意味나 概念을 전달하는 表意文字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면, 회차리의 그림은 지배나

정복을 뜻하였고, 해 그림은 낮이나 時間을, 입에 손을 든 사람의 모습은 먹는 것을 의미했다. 오늘날도 우리는 表意文字로서 미처 생각못하는 많은 종류의 表意文字를 사용하고 있다. 고속도로상의 많은 sign도 表意文字이고 算數와 音樂에서 사용하는 記號 역시 그러하다.

이집트인은 表意文字로 부터 文字發展上 다음 단계인 表音文字로 발전시켰다. 이 音文字에서 繪畫的 象徴은 특별한 音聲을 수반하여 비록 그림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다를지라도, 그 音聲이 내포하는 의미를 전달하였다. 한 예로, 영어의 “bee”(벌)의 그림으로 동사 “be”를 의미한다고 하고, 여가어 예약된 音價를 동반한 그림文字가 보다 긴 말을 구사하기 위해 함께 쓰여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bee(벌)와 leaf(잎)의 그림이 “belief”를 묘사한다. 이집트인은 이 수수께끼 같은 文字言語를 훌륭히 사용했으나 서로 다른 意味를 가진 많은 同音字를 구별하기 위해서 表意的 記號를 계속 사용했다. 예를 들어, “river”(강)와 “palace”(궁전)에 대한 소리가 같고, 그리고 “river”로서 읽혀 지기를 원한다면 表音文字에다 “water”를 의미하는 表意的 記號를 같이 사용하고, “palace”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house”를 의미하는 表意的 記號를 첨가시켰다.

만약 이집트가 表音文字에서 한 단계 진전하여 音節을 표시하지 않고 첫 소리만을 취했다면 이것이 곧 音聲記號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bee”의 그림文字는 子音인 “b”소리만을 냈을 것이고, “leaf”의 그림文字는 “l”소리만 냈을 것이다. (이상의 예는 연구중인 문자 발달의 근원은 아니며 다만 例證을 위한 보기일 뿐이다). 이집트인들은 진정한 表音文字를 결코 완성시키지 못한 반면, 그들은 약 25자의 자음을 대한 일련의 기호와 각기 2개의 자음을 표시한 또 다른 75개의 기호를 개발했다. 이 2가지는 사실상 글자라고 하기 보다는 음절을 나타냈다. 言語전체가 상기한 表音記號(phonetic symbols)로 쓰일 수 있었으나, 이집트인은 表意文字와 表音文字의 결용을 택했으며, 表音記號는 外國語를 고쳐 쓸 때나 固有名詞에만 주로 사용하였다.

이집트인의 그림文字는 “신성한 새김”(sacred carvings)을 의미하는 그리스어語로 부터 유래한 “象形文字”(hieroglyphic)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實例로는 기원전 3000년전으로 거슬러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초기의 것으로는 물에 새겨진 것이지만, 이집트 史上 초기에 파피루스갈대(papyrus reed)로 만들어진 書寫資料가 개발되었다. 이 파피리(papyri)의 많은 예증이 대부분 전조한 사막의 모래속에서 단편적인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다소의 긴 두루마리가 밀폐된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오늘날 종이(paper)라고 하는 단어도 그리스와 라틴을 통하여 papyrus에서 유래되었다. 초기의 象形文字가 물위에 새겨졌던, 파피루스에 쓰여졌던 간에, 이것은 엄격히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었고, 약 B.C.3000년에 이르러서는 그림으로 부터 변형된 형태로 진전되었다. 이것을 hieratic script(聖<俗用>文字 : 고대 이집트의 象形文字의 초서체로서, 후에 神聖文書에 전용된 문자)라고 하며, 파피리에다 붓과 잉크를 가지고 속필 용으로 적합했다. 다음 단계의 필기체는 약 B.C.700년 경에 전개되었다. 이것은 聖文字(hieratic script)를 간소화 한 것으로 domestic script(고대 이집트의 民用文字)라고 하며, 개인적, 商業적 업무에 널리 사용되었다. 반면, 象形文字(hieroglyphic script)는 관공적, 종교적 필기체로 약 5세기경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고대 이집트멸망 후, 象形文字의 사용은 그리스와 아라비아 文字體에 영향을 끼쳤으며, 발견된 例文은 천여년간 누구도 판독할 줄 몰랐다. 드디어 19세기초에 나폴레옹의 이집트정복 시도에서 불란서병사가 발견한 기묘하게 새겨진 장식판인 Rosetta stone을 英國博物館에서 입수하였다. 이것은 그리스어語, 象形文字, 民用文字 등, 세가지 碑銘이 새겨져 있고, 이 세가지 文字體가 동일한 에메지를 전한다. 그리스어文字는 읽을 수 있었지만, 이것으로부터 이집트 文字를 즉시 해독할 수는 없었다. 몇몇 學者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 돌을 연구하였고, 마침내 젊은 불란서 학자 Jean François Champollion이 象形文字를 해독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하였다. 그는 이 돌에 새겨진 象形文字의 한 그룹이 固有名詞를 표시한 것으로 추측했고, 여기에 같이 새겨진 그리스어語의 本文으로부터 이 固有名詞를 알아내어 수백개의 이집트文字에 각기 뜻을 지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오랜 작업이었고, 영국, 불란서, 독일 등의 다른 학자들도 이 작업에 공헌했으나, Champollion은 1821년에 Rosetta stone의 판독을 발표하여 이집트 象形文字의 최초의 判讀者로 일반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집트 文字體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아직도 완벽치는 못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일강유역사람들의 歷史와 생애에 대한 광범위한 情報를 전개할 수 있다. 이것은 알파벳體制은 아니지만 3000년 이상 사용해온 文字를 어떻게 사람이 발전시켜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의 이라크인 메소포타미아유역에서도 다른 文明이 고대이집트의 文明과 동시에 발전하였다. 이는 B.C.3000년이전 부터 B.C.500년 사이에 존재했던 Sumerian Babylonian-Assyrian 文明을 말한다. 이들 역시 그림文字를 바탕으로 한 文字를 발전시켰으나, 이집트

인의 文字와는 다소 달랐다. 수메르人(Sumerian)과 그 후손은 파피루스가 아닌 돌을 사용하다가 점차로 粘土版(clay tablet)에 文字를 기록하였다. 짧고 뾰족한 철필이나 목재필로 굳지 않은 粘土版에 文字를 새긴 다음, 단단하게 말렸는데, 영구한 기록을 남기려면 이 말린 粘土版을 벽돌로 구어야만 했다. 이 粘土版에 그림 文字를 정교하게 새기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수메르人은 粘土版에 쉐기형(V자형) 필법으로 도표형을 형성했다고 추측된다. 이것을 楔形文字(cuneiform)이라고 하며 이 필법은 앓시리아人(Assyrian)과 바빌로니아(Babylonian)人에 의해서 더욱 간소화되어 그 원형의 그림과는 유사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바빌로니아와 앓시리아 言語는 수메르의 言語와는 달랐지만 그들은 수메르의 楔形文字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마치 言語가 다른 日本이 中國文字를 사용한 것과 같다. 이집트의 경우와 같이, 楔形文字는 表意文字를 거쳐 表音文字로 발전했지만, 결코 진정한 알파벳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렇지만, 앓시리아는 表音文字를 수백개로 축소시켰으나 B.C.7년 경에 앓시리아를 정복한 페르샤(Persia)는 이 楔形文字를 받아들여, 더욱 간추려서 43개의 準알파벳(semi-alphabet) 형태로 간소화시켰다. 이 중에서 어떤 文字는 音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알파벳으로는 볼 수 없다. 이것은 B.C.4년에 자취를 감추었으므로 알파벳 文字의 발전상 영구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楔形文字의 判讀과 解析에 관한逸話도 Rosetta stoen의 것 만큼이나 로맨틱하다. 많은 學者들은 수세기 동안 예증되어 온 粘土版을 통해서 판독을 시도해왔다. 英國의 陸軍將校이며 學者인 Henry Rawlinson卿은 19세기 초에 Shah의 군대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페르샤로 파견되었다. 그는 여가를 이용하여 페르샤일대의 옛 文明의 遺跡을 찾아다녔다. 그러는 도중, 그는 어느 길은 골짜기의 바위에 새겨진 하나의 碑文을 발견하였다. 이 碑文은 Rock of Behistun이라고 하며, 바빌로니아, 시디아(Scythia), 古代페르샤의 세 나라 말로 새겨져 있었다. 그 전에 수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페르샤語를 읽을 수 있었던 Rawlinson은, 여러 학자의 도움을 받아, B.C.500년에 페르샤王의 法令에 의해서 이를 판독할 수 있었다. 그후다른 學者들이 이 전시대의 수메르人의 楔形文字까지 발견하여 판독하였고, 따라서 발견은 되었지만 판독하지 못하였던 메소포타미아유역의 3000年 歷史를 담은 資料를 판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계속해서 고대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지역의 遺跡에서 수 많은 楔形文字版이 발굴되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그들의 生活樣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Rawlinson과 그의 동료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던 것이다.

다른 형태의 많은 古代文字가 발견되었으며, 例證이 충분하고 原文이 두 가지이상의 言語로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판독되었다. 예를 들어,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사이에 살았던 히타이트族(Hittites)은 그림 文字와 바빌로니아에서 건너 온 楔形文字를 혼용하였다. 후자인 楔形文字는 쉽게 판독되었지만, 전자인 그림 文字는 해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節次가 필요하였다. 최근에 와서 古代文字의 判讀에 성공한 것은, 1950년에 그리스 本土의 이웃인 크리이트섬에 거주했던 미케네족의 文字인 "Linear-B"의 判讀이다. 젊은 英國學者 Michael Ventris는 이 "Linear-B"의 言語가 그리스語 아니면 초기의 그리스語라고 추론하여 현대적인 暗號解析法을 사용하여, 이를 판독하였다. 또한, 크리이트섬에서 발견된 이와 유사한 文字가 "Linear-A"로 지정되었으나, 이것은 분명히 또 다른 言語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판독하지 못하고 있다. B.C.3000년경에 印度의 인더스江 유역에서도 그림 文字를 사용하였는데, 이 文字 역시 表意文字와 表音文字體制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 例證이 너무도 희귀하기 때문에 판독하기가 힘들다. 太平洋 南東쪽에 자리잡고 있는 이스터 아일랜드(Easter Island)와 중앙아메리카를 포함한 세계 각 곳에서도 古代文字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文字가 발견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마야族(Mayan)의 文字는 정교한 형태의 象形文字로서 숫자와 날자의 일부는 판독되었으나, 言語自體는 거의 판독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판독되지 못하고 있는 文字들은 또 다른 Rawlinson, Champollion, Ventris와 같은 學者를 기다리고 있다. 거의 모든 경우 이런 文字는 판독하기에는 例證이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독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세계의 중요한 각 文明은 분명히 그림 文字로부터 시작되었다. 中國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경우와 같이, 中國도 결코 알파벳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中國語는 현존하며, 文字 역시 오늘날 數億의 中國人이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言語는 다르지만 日本, 韓國, 그리고 다른 아시아인들이 채용하고 있다. 中國文字도 象形文字로 시작했지만, B.C.1000년 경엔 최초의 그림 文字는 거의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인습화된 모양을 지니게 되었다. 中國文字도 이집트의 경우와 비슷하게, 表意文字에 의해 변하다가 表音文字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후기의 中國文字는 성공적이어서 사실상 3000년 동안을 변하지 않은채 사용되었다. 오늘날 中共에서는 거처장스러운 表意文字를 알파벳으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세계는 알파벳 文字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알파벳은 B.C.2000~3000년 사이에 동지중해연안에서 발전되며 그 起源을 두고 있다. 이 種族(Semitic)의 알파벳은 태고에서의 起源은 모호하지만 그것에 관한 여러가지 說이 있다. 많은 學者들이 그 起源을 이집트의 民用文字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집트의 약간의 表音節文字와 種族의 초기의 알파벳記號는 다소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전혀 다른 점도 많다. 알파벳 起源을 연구하는 또 다른 學者는 種族이 살던 지역에서 사용된 楔形音節文字를 알파벳의 가능한 源으로 지적하는 한편 다른 學者는 사이프러스(Cyprus)와 크리이트 섬에서 사용한 초기의 文字가 그 起源임을 강조한다. 古代유가리트(Ugarit)의 遺跡에서 발견된 粘土版에 새겨진 30字의 楔形文字는 粘土版에 쓰기 위한 초기의 種族의 알파벳 응용처럼 보이며, 이 版은 B.C.1500년전 것으로 추정된다. 音聲알파벳의 起源은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으나, 몇몇 種族이 B.C.2000년경에 사용했고, B.C.1000년경엔 페니키아인(Phoenician)이 22字의 상당히 발달된 알파벳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페니키아인은 오늘의 이스라엘과 시리아연안에 살던 貿易商人으로 지중해 연안을 무대로 상업에 종사하였다. 商人으로서 페니키아인은 어느면에서는 그들 보다 선진국의 사람들인 이집트인, 히브리인, 크리이트인, 사이프러스인, 히타이트인, 그리고 바빌로니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다. 추측컨대, 페니키아인은 상업관계상 간단한 文字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알파벳의 폭넓은 사용을 시도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이 알파벳을 특히 그리스인에게 보급시켰다.

그리스는 音聲알파벳을 채택해서, 그들의 言語에 응용하여, 훌륭한 文學創造에 이용하였다. 페니키아인은 子音으로만 구성된 알파벳을 사용했지만, 그리스인은 페니키아인의 몇가지 文字를 母音으로 사용하였고, 그리스어 音價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文字도 첨가시켰으며,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필기하는 습관을 이룩하였다. 이 알파벳은 그리스로부터 처음엔 에트루리아(Etruscans)로 전해졌고, 후에는 로마를 거쳐 이탈리아 반도에 전해졌다. 에트루리아인은 26字의 알파벳을 사용하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필기했다. 古代로마인은 그리스의 알파벳을 약간 변형시켜 로마식 알파벳으로 만들었으며, Christ시대에 이르러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의 原型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거의 모든 서양의 言語는 로마의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아, 불가리아와 같은 몇몇 국가는 라틴어와는 형태가 다른 그리스어 言語로부터 전래된 古代서필字母(Old Cyrillic)에서 파생한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현대의 아라비아의 유래를

포함한 近東(Near Eastern)과 東南아시아(Southeast Asian) 지역의 알파벳은 북부 種族의 文字를 사용한 다른 후손이나 동계의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것이었다.

□ 筆字資料

古代筆寫의 文字는 대부분이 필사되는 資料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이집트의 僱用文字는 파피루스에, 바빌로니아의 楔形文字는 물에다 각각 가장 효과적으로 필사할 수 있도록 적응, 발전하였다. 아마도 최초의 筆寫資料는 나무표면에 숯이나 뾰족한 돌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자료는 오래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그 例證이 무척 희귀하다. 그 후엔 무두질하거나 손질한 짐승 가죽이나 나무껍질, 혹은 특정한 나무의 속껍질 등이 筆寫資料로 사용되었다. 또한, 원시적인 직물까지도 筆寫資料로 사용되었으나, 영구적인 보존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 단편적인 것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人間이 물위에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집트인이 종종 그랬듯이) 영존하는 기록남겼다. 물에 기록한다는 것은 힘든 작업이었기에 가장 중요한 기록만을 다루었다. 바빌로니아인과 楔形文字를 사용한 그 밖의 種族에 의해서 사용된 粘土版은 오래 보존할 수 있었고, 수 많은 例證이 잔존하고 있다.

이집트인은 풍부하고 경제적인 筆寫資料로서 나일강가에 무성히 자라는 야생의 파피루스 갈대를 사용하였다. 파피루스 갈대가 아직 어리고 푸를 때, 나무를 자르고 갈라서, 찢득거리는 속응어리를 꺼내어 말린다. 다음엔, 이 섬유질의 속응어리를 길고 가느다란 조각으로 펼쳐서 납작하게 누른 다음, 그 위에 또 다른 조각을 똑바로 맞추어 얹어서 아교나 풀칠을 하여 다시 눌러 말린다. 그것은 얇고 다소 구멍이 있지만, 영속성 있는 筆寫資料가 된다. 다음엔, 파피루스의 面을 상아나 뼈, 조가비로 판판하게 문질러 반들반들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파피루스의 보통 길이는 9~11인치이고, 그 넓이는 대개 5~9인치였으나, 다른 크기도 있었다. 더 큰 것이 필요할 때는, 여러장의 파피루스를 이어 붙여, 나무, 쇠, 상아 등에 두루말아 감았다. 이 두루마리는 보통 15~20피트였으나, 100피트가 넘는 두루마리도 발견되었다.

파피루스筆寫에 사용된 잉크는 그으름이나 숯가루를 고무질용액과 섞어서 덩어리로 말렸다가 필요할 때 물에 타서 사용하였다. 이집트인은 붉은 납이나 철산화물로 물들인 고무질現色劑(gum base)로 만든 붉은 잉크를 사용했으며, 때때로 다른 색깔을 내기 위해서 노란색(yellow ochre : 황토), 갈색(limonite : 갈철광), 녹색(malachite : 공작석) 등의 광물들을 사용하였다.

말린갈대로 만든 갈대펜(Reed pen)을 뾰족하게 깎아서, 이 뾰족한 끝부분을 무디게 만들어 서부드러운 솔로된 펜촉을 만들어 파피루스에 글씨를 썼다.

파피루스갈대는 주로 비옥한 나일강 유역에서 자랐으며, 대부분의 파피루스도 이곳에서 생산되었다. 수요가 급증해짐에 따라, 파피루스는 지중해연안의 다른 나라로 수출되어 이집트는 파피루스 생산을 독점하게 되었고, 파피루스 제조업은 주요한 産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파피루스는 몇가지 등급으로 제조되어 두께, 세련도, 품질에 따라 각 종류마다 명칭이 주어졌다. 파피루스 貿易은 중요한 상업이었기 때문에, 페니키아인은 이를 그들의 主要商業으로 간주하였다. 파피루스는 古代그리스와 로마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筆寫資料였으며, 5세기 이후에는 그 사용이 많이 감소되긴 했지만, 11세기까지 사용되었다. 대체로 파피루스는 4000년이 넘도록 으뜸가는 筆寫資料로 사용되었음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古代에서는 파피루스 이외도 또 다른 훌륭한 筆寫資料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羊皮紙(parchment)라고 하는데, 송아지, 양, 염소 등의 가죽을 특별히 처리한 것이었다. 말리거나 가공한 짐승가죽이 수천년동안 筆字資料로 사용되어 왔으나, 羊皮紙는 일반적인 가죽이나 짐승의 皮紙보다는 더 얇고, 희고, 부드럽었으므로 양면에 筆寫하기에 월등한 것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羊皮紙는 이집트의 파피루스 독점의 競爭對象으로서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소아시아의 Pergamum 市에서 전래되었다고 하나, 사실 그 起源은 더욱 복잡하다. 羊皮紙는 오랜 세월을 거쳐 몇몇 지역에서 발전한 것만은 틀림없다. Pergamum 市는 B.C. 2세기에 이르러 羊皮紙의 무역중심지가 되었고, “羊皮紙”란 단어도 Pergamum의 라틴語로 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2세기 즈음에, 羊皮紙는 전 지중해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중세까지도 유럽에서는 중요한 筆寫資料의 역할을 하였다. 파피루스와 마찬가지로, 羊皮紙는 여러 등급으로 생산되었으며, 송아지 皮紙(vellum)는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고급품질의 명칭이다. 양피지와 송아지피지는 다양한 품질로서 서로 대치되며 사용되었다. 羊皮紙는 희한한 색으로 물들이고 다양한 색의 잉크로 필사해서 많은 아름다운 寫本을 만들어 냈다. 또한, 羊皮紙는 파피루스 보다는 쉽게 접을 수 있어서 현대적 冊形態가 사용되면서부터 파피루스를 물리치고 점차적으로 일반적인 筆寫資料로서의 위치를 굳혀갔다. 羊皮紙는 19세기까지도 法律寫本으로 유럽, 미국 등지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오늘날은 특별히 귀중한 冊과 文書를 위해서 이따금 사용된다.

羊皮紙 사용은 筆寫道具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솔로

된갈대펜은 뾰족하고 갈라진 깃털펜(split-feather quill)으로 발전하였다. 로마인은 깃털펜을 즐겨 사용했고, 우리의 펜이라는 말을 “feather”의 라틴어로 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 깃털펜은 적어도 2000년동안 筆寫道具로 사용되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속펜촉은 깃털펜의 완전한 모방인 것이다.

□ 두루마리로 부터 冊의 形態로

羊皮紙가 개발된 오랜 후에도, 여러가지의 책형태가 시도는 되었으나, 두루마리 형태는 계속 사용되었다. 판관한 나무조각위에 솟막대기로 필사하는 방법이 최초의 석판이었다. 후에 이 木材板에 왁스를 얇게 입혀서 나무나 상아첨필로 그 위에 읽기 쉽도록 기록하였고 이것은 재사용을 위해서 다시 편평하게 만들어진다. 오늘날의 “tablet”의 어원인 이 “tabula”(필사판)은 학교에서의 學習問題, 상업상의 會計問題, 그리고 使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같이 왁스를 입힌 書板은 널리 보급, 사용되었고, 이집트,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 등지로 부터 목재, 상아,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例證이 발견되어 왔다. 때로는 이 書板을 두개를 묶어서 사용했으며, 점차적으로 현대의 冊과 다소, 비슷한 “diptych”(고대의 들로접은 書板)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 diptych는 왁스를 입힌 兩面이 서로 안쪽으로 마주 접혀지기 때문에, 의상을 피할 수가 있었다. 때로는 왁스를 입힌 매우 얇은 목재나 금속의 書板 여러개에다 걸장을 달아서 같이 묶었고, 이것이 현재의 冊形態로의 가까운 접근법이었다.

약 A.D.100년경에, 또 다른 형태의 冊이 특히 로마에서 유행되었다. 이를 codex라 하며, 그 형태는 여러장의 筆寫板(tabula)을 묶은 것과 비슷하였으며, 파피루스나 羊皮紙로 만들었다. 여러장을 접어서 접은 쪽을 함께 꿰어 한 첩에 8장, 12장, 16장, 혹은 더 많은 장수로 冊을 만들었다. 이 형태의 冊은 여러권을 같이 비교, 조사할때, 두루마리 보다 사용이 편리했다. 따라서 두루마리 형태보다 codex의 사용이 더 유행하였고 파피루스로 만든 codex도 많이 발견되어 왔지만 양피지가 codex로 여기엔 훨씬 적합하였기에 파피루스대신 羊皮紙의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목재나 가죽으로 된 書背(spine)가 codex에 첨가되면서 현재의 책형태로 접근되었다. A.D. 300년경에 이르러서는 codex가 가장 널리 보급된 책형태이었지만 중세까지는 두루마리 형태가 중요한 寫本에 계속 사용되었다.

두루마리와 codex 형태 이외도, 세계 도처에서는 많은 세월을 지나는 동안, 여러가지 형태의 책들이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佛敎地域에선 아코디온형태의 책을 사용하였고, 이 형태는 지금도 티베트

의 筆寫資料를 아코디언처럼 접어서 한쪽 면을 차례대로 먼저 읽고 뒷면을 읽게 되어있다. 중앙아메리카의 마야족이 사용하던 초기의 codex도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접어서 사용하였다. 동남아시아의 몇 지역에서는 책形態로 종려나무잎인 “ola”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것은 좁고 장방형인 종려나무잎 양면에 筆寫해서 앞의 양끝을 실로 꿰매어 사용하였다. 종려나무 잎의 한면을 읽은 다음, 뒷면을 읽고, 다음 면을 읽기 위해서 먼저 읽은 잎은 앞으로 밀어 놓는다.

圖書와 圖書館에 관련된 몇개의 單語의 語源을 알아보기로 하자. 영어의 library는 librarium이 어원인 불어의 librairie에서 유래하고 있다. Librarium은 liber (book)란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나, 라틴어인 liber는 본래 筆寫資料로 사용하였던 “나무의 속껍질”(inner bark of tree)을 의미하였다. 오늘날의 불어 librairie는 圖書館이 아니라, 書籍商人이나 書籍商을 의미한다. 불란서人들은 圖書館을 bibliothèque라 칭하며, 이는 “book cabinet”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圖書館을 bibliothèque와 유

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bibliothek로, 스페인에서는 biblioteca로 부르고 있다. 한편, 영어의 book은 앵글로-색슨語에 語源을 두며, “木板”(wooden tablet)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이 語源은 筆寫資料로서 일찌기 나무나 나무껍질의 사용을 의미하는 “beech tree”를 뜻하는 독일어의 “boch”라는 단어에서 기원하였거나 관련이 있음에 틀림없다.

지금까지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人間은 亙古代에 이미 여러가지 형태의 文字와 筆寫資料를 활용하였고 최소한 지중해지역에서는 文字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천년 이상을 변함없이 사용했고 정착시켰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그리스와 라틴에서 사용함 表帛알파벨과 parchment codex와, 잉크펜이나 깃펜촉등을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위대한 문학을 기록 보관할 수 있었던 물리적 자료가 풍부히 활용되었음을 그리스와 로마가 남긴 古典을 통하여 충분히 엿볼수 있다. 이와 같은 훌륭한 文學의 短篇만이라도 後世를 위하여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은 초기의 圖書館과 司書의 役割을 입증해 주고 있다.

各 圖書館 必携의 參考文獻

R. R. BOWKER COMPANY

BOOKS IN PRINT: Author Index: Title Index 1974, 4 vols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74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5/e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e

MARQUIS WHO'S WHO, INC.

Who's Who in America, 38/e
 Who's Who in the World, 1/e

BURCH FRANKLIN

- | | | |
|-----------------|---|-----------|
| Courant, M., | Bibliographie Coreenne, 3 vols | \$ 90.00 |
| Howorth, H. H., |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4 vols. | \$ 200.00 |
| Kerner, R. J., | Northeastern Asia, a selected bibliography:
contributions to the bibliography of the relations of
China,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Manchuria, and eastern Siberia, in Oriental and
European languages, 2 vols | \$ 57.50 |

敝社에서는 上記 出版物의 韓國總販으로 註文을 拜受하고 있아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株式會社 汎文社

서울특별시 중구 경교로 40, 전화 (72) 5131-33